

해체주의를 응용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이재열 · 구자명*

광주보건대 피부미용과, *한성대학교 패션예술학과

The Make-up Illustrations Based on Deconstruction

Jae Yeol Lee · Ja Myung Gu*

Dept. of Cosmetology, Kwangju Health College

*Dept. of Fashion Art & Design, Hansung University

(2004. 3. 18. 접수)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new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make-up design by understanding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on make-up and to search for new directions and methods in theme expressions and design conceptions by making illustrations with deconstruction themes. This study examines conceptual characteristics of Derrida's deconstruction, and analyzes the various deconstruction make-up styles through the famous fashion magazines such as Beauty Collection, Collections, Fem, Modain, and Vogue since 1997. The make-up illustration works in this study were made depending on these styles. At first, the nature of deconstruction make-up can be explained as deconstruction of existing methods, deconstruction of the sexes and deconstruction of history or ethnicity. The deconstruction of existing methods can be subdivided into decadence make-up, detester make-up, graphic make-up and collage make-up. Deconstruction of the sexes can be explained androgynous make-up. Deconstruction of history or ethnicity is subdivided into white makeup, ancient Egyptian dark eye make-up and raceless make-up. The deconstruction make-up illustrations present infinite possibilities in expression styles through three dimensional expressions and media mixture using not only drawing materials including watercolor, poster-color, and color pencils but also objets including magazines, coarse fabrics, screentone, beads, suede, sand and so on. The study shows that since deconstruction make-up illustrations are not limited to depiction-centered expressions, they serve creating unique images and future inspirations.

Key words: Deconstruction, Deconstruction make-up, Make-up Illustration; 해체주의, 해체주의메이크업,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I. 서 론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은 메이크업과 일러스트레이션을 결합하여 만든 새로운 범위로 미술의 매체를 빌어 인체 연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대중적 예술의 한 부분이다.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은 고객 대상의 메이크업 시술 전, 디자인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용도에서부터 패션 쇼를 위한 메

이크업의 작품 시안이나 연극, 영화, 광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획과 제작을 위해 준비되어지거나, 메이크업 트렌드를 제시하거나, 기업 판촉 또는 뷰티 기사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미술품과 같이 풍부한 이미지와 예술적 가치를 지닌 예술작품으로까지 그 분야별 쓰임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은 그 자체로서의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영역이 확대되어 가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용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예술적 작품으로서의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와 작품활동이 요구된다.

한편 매스미디어와 산업화로 인해 복잡하고 다양해진 사회 구조 속에 살고 있는 대중들은 신념과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자아정체감을 위해 개성화, 다양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짐으로 이와 함께 예술에 있어서도 이전의 형식적인 스타일을 해체하거나 거부하고 풍부한 상상력과 정신적 영감에 근거하여 자유분방한 스타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즉 예술가들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해체주의 철학을 배경으로 한 예술작업을 통해 인간의 정신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시도해 왔다.

해체주의란 ‘차이’, ‘억압된 것의 복귀현상’, ‘탈중심화’ 등의 개념으로 경계가 존재하는 성, 시간, 장소, 목적 등 모든 것을 해체시킨 철학사상으로써 20세기 후반 사회 문화 뿐만 아니라 복식과 건축을 포함한 조형예술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조이다. 해체주의의 대표적 인물인 데리다(J. Derrida)는 해체주의 이론을 탈현상,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 차연 등으로 분류하였다.

메이크업에서도 1990년대 후반에는 형태 파괴, 불완전성, 왜곡, 기형 등 실험적이고 충격적인 추(醜)의 미가 본격적으로 표현되었고 얼굴이라는 조형요소를 해체하여 새롭게 재구성한 메이크업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성을 모티브로 한 일러스트레이션은 메이크업 디자인에 있어서는 기발하고 획기적인 형태, 질감의 시각효과를 느낄 수 있으며, 표현방식에서는 묘사위주의 표현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재를 혼합하거나 입체적이고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등 표현 영역의 확대와 표현 방법의 다양함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해체주의와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을 접목시켜 작품을 제작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메이크업에 나타난 해체주의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해체주의 메이크업이 활발히 진행된 1997년 이후의 패션 전문잡지 *Beauty Collection*, *Collections*, *Fem*, *Modain*, *Vogue*에 실린 해체주의 메이크업 특성을 분석하여 메이크업의 새로운 창조에 대한 아이디어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해체주의 메이크업을 테마로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작함으로서 주제표현 능력과 더불어 디자인 발상에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앞으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을 연구할 이들에게 참고적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앞으로 많은 창작활동에 보탬이 되어 예술적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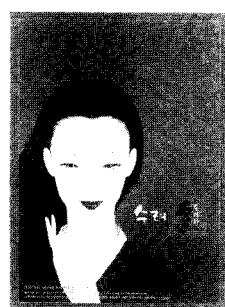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의 의미는 메이크업과 일러스트레이션이 결합하여 만든 새로운 범위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은 메이크업의 구상을 스케치하는 것이다”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것은 메이크업을 표현 주체로 하여 만들어진 설명도 또는 예상도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일러스트레이션의 기능과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1>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이영애 외 4인, *Beauty Illustration*, 2002, p.56.
 <그림 2>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이연희 외 1인, *Make-up Design*, 2003, p.78.
 <그림 3> 판촉을 위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주간 코스메틱, 2003, 9월 15일자, p.8.

목적성을 메이크업의 의미와 가치에 맞게 표현한 것이다.

현재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은 메이크업 디자인을 위한 독자적인 분야로 그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의 활용과 기능이 다양해짐을 알 수 있으며,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의 용도를 나누어 보면 아래의 1), 2), 3)과 같이 판촉 또는 정보제공 등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려지는 일러스트레이션과 4)와 같이 단순히 작품으로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1)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제작되어지는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은 첫째, 메이크업 디자인의 조언을 구하는 솔 고객에 대한 조언으로서의 활용을 들 수 있는데, 시술 전에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이나 디자이너가 구상한 스타일을 고객에게 그림으로 표현하여 제시해 주는 하나의 트렌드로서의 일러스트레이션이다(그림 1). 둘째, 패션쇼, 오페라 등의 무대공연, 광고, 이벤트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의사소통 도구로서 준비되어지는 일러스트레이션이 있다. <그림 2>는 극중 인물의 캐릭터를 살린 일러스트레이션으로서 이러한 작업은 디자이너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2) 판촉을 위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기업의 판촉을 목적으로 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은 대중에게 강한 인상과 흥미를 북돋워 구매동기를 유발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용도는 미용관련업체의 카탈로그, 뷰티 전문점의 이미지 광고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림 3>은 한방 화장품을 출시하면서 제품의 컨셉트를 살리기 위하여 단아한 여인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3) 정보 제공을 위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신문이나 잡지에서 메이크업 기사의 정보 제공 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은 주제에 따른 작품들을 쉽게 전달하는 보도적인 기능과 메이크업 정보의 제공 및 취재 기사에서의 삽화 역할로도 이용된다(이상봉, 2003). <그림 4>는 2001년도 Vogue지에 실린 기사로서 메이크업 도구의 용도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이다.



<그림 4>



<그림 5>

<그림 4> 정보제공을 위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Vogue Korea, 2001, 4월, p.79.

<그림 5> 예술적 작품으로서의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Make-up Art, 2003, 7월, p.26.

4) 예술적 작품으로서의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이는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이 다양하게 발전함에 따라 미술품과 같이 풍부한 이미지와 예술적 가치를 지닌 그림을 말한다. <그림 5>는 2003 Beauty Art Exhibition에 출품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으로 에어브러시와 오브제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기법을 표현하였다. 최근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은 예술적 모색과 창의적 개발로 인해 독자적인 예술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2. 해체주의

해체란 어떤 의미에서든 처음의 구조를 우회하여 그것을 지지하고 있던 모든 가치를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또 다른 형태를 형성하는 작업을 말하며, 해체주의는 이분법적인 서구적 전통을 비판하여 구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하였다.

1960년대, 구조주의의 기본 문제들을 근본부터 흔든 자크 데리다(J. Derrida)에 의해 거론되고 체계화된 해체주의는 기존 이성 중심 사고관의 회의에 의해 시작되어 전통적 고정관념을 무너뜨린 철학사상으로서 이는 문학, 예술, 디자인 분야 등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메이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데리다의 이론을 중심으로 해체주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데리다는 유일한 진리란 있을 수 없고 하나의 진리를 고집하는 것은 독단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은 진리의 혼돈을 믿어왔던 서양철학 사상의 전통을 그 근원부터 해체하는 것이며 인간의 인식과 지식의 절

대적인 기준을 불확실하게 하는 것이다(윤소정, 1996). 불확실성이란 모든 체계가 개방성을 띠어 무한히 확장됨에 따라 다의(多義)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그의 해체주의의 이론은 의미 체계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조미영, 1999). 그런 의미에서 데리다의 해체이론은 달힌 체계에 대한 저항이며, 동시에 불안정과 무질서를 포용하여 다양성과 혈립을 추구하는 지적 텁색인 것이다(김주현, 1999).

데리다의 해체주의의 개념적 특성 중 디자인 개념에 적용 가능한 대표적인 것으로 Dis · De 탈현상,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 차연을 들 수 있다(김지연, 1997; 김혜정, 1998).

I) Dis · De 탈현상

탈구성(Dis-composition)은 분해 · 분석된 텍스트들이 무작위로 상호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기준의 구성 방식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조형’이라는 개념을 기능이나 경제적, 기술적, 실용적 관점에서 구성하지 않고 변위나 간격을 두는 행위의 과정으로 본다. 처음의 구조를 음미하고 그것을 뒤반침하고 있는 모든 가치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구조를 외부로부터 봉괴시키지 않고 내부로부터 해체시키는 것이다(임광숙, 1998). 이러한 탈구성은 1960년대 이후 억압된 것의 복귀현상으로 탈중심화 현상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탈중심(De-centralize)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소외된 것, 타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일체의 중심주의를 해체함이다.

2) 불확정성

해체주의는 로고스중심주의(Logocentrisme), 이분법이 해체됨에 따라 의미의 불확정성(Undecidability)으로 통합되었다. 데리다에 의하면 ‘의미’란 주관적인 허구적 구조물로 모든 체계가 개방성을 띠게 될 때 ‘의미’는 무한히 확장되어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때 의미의 불확정성은 ‘차연’의 해체 전략을 토대로 형성하고 모든 개념들은 비결정적인 요소로서 체계를 해체시키며 상대적인 개념 하에 체계를 유지해 나가게 된다.

3) 상호텍스트성

이분법에 대항한 해체주의는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으로 설명할 수 있다. 텍스트는 서로 교차하여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조직적인 특성을 지니므로, 독립하여 존재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간다. 즉 상호텍스트성에 의하여 열린 사고를 지향하고 일원화, 획일화됨을 거부하며 하나의 개체를 해체시키는 것이다(조말희, 1997). 따라서 경계가 존재하는 성, 시간, 장소, 목적 등을 해체하여 범주가 없어지도록 서로의 혼적을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성(性)의 상호텍스트성은 남성에서의 여성적 이미지, 여성에서의 남성적 이미지를 공유하는 성을 말한다. 이는 앤드로지니(Androgyny) 즉 양성성의 개념으로 설명된다(김주현, 1999).

4) 차연

데리다는 영어의 differ(구별하다, 다르다)와 defer(연기하다)의 뜻을 동시에 지닌 불어 동사 differer에서 difference(차연)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크리스토퍼 노리스, 앤드류 벤자민, 청람 번역팀 역, 1996). 이는 차이(difference)의 개념에 ‘지연하는, 연기하는’의 의미가 포함되어 나타난 것으로 차연(差延)은 공간적인 차이의 개념에 시간 개념이 도입되어 차이가 지연되는 것을 말하므로, 시공간의 초월과 수평 수직의 대립관계 파괴, 시공간의 개념 해체 등을 의미한다(김형효, 1993).

3. 해체주의 메이크업

데리다 이론에 의한 해체주의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에서 고려되는 얼굴의 구성요소를 해체한 탈형식적 개념과 조형양식의 해체로 인해 새로운 공간개념을 창출하는 불확정성의 특징을 나타낸다. 즉, 기존 메이크업의 조형적 양식인 좌우대칭, 균형미등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색채의 사용도 무한한 영역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감각으로 연출하고 질감표현에 있어서도 이질적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서로의 텍스트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으로 설명되어지는데 이는 성 구분이 모호하도록 양성의 특성이 동시에 포함되어 여성의 눈썹을 남성처럼 굽고 짙게 그리거나 수염을 차용하기도 하고 남성은 메이크업을 하거나 머리를 기르고 밝은 컬러로 염색함으로 여성적 이미지를 연출한다. 한편, 역사를 차용하여 과거-현재-미래를 한 공간에 공존시킴으로써 차연의 특성을 지닌다. 차연의 특성은 시 · 공간을 초월한다는 의미에서 T.P.O에 따른 메이크업의 형태를 해

<표 1> 데리다 이론에 따른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성 및 표현방법

해체주의 이론	특성	분류	메이크업 특성 및 표현방법
Dis·De 탈현상	형태 파괴, 기존의 구성방식을 파괴. ‘조형’의 개념을 해체함. 무가치하고 소외된 것들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일체의 중심주의를 해체함.	조형 양식의 해체	부조화와 과장된 표현.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이색적 컬러 도입. 자극적 장식에 의한 혐오감, 성적 노골화로 인한 에로틱 이미지를 표현. -데카당스 메이크업.
불확정성	모든 개념을 비결정적인 요소로서 체계를 해체시켜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함.		동물의 요소 일부를 메이크업 소재로 이용, 험악하고 기이한 이미지를 표현. - 데테스테 메이크업 기하학적인 형태를 이용. 얼굴의 중심을 무시하고 새로운 공간개념을 창출. - 그래픽 메이크업. 이질적 소재 사용, 부조화로 인한 기이함과 유머러스함을 표현. - 콜라주 메이크업.
상호 텍스트성	경계가 존재하는 성 등을 해체하여 범주가 없어지도록 서로의 흔적을 받아들임.	성의 해체	상반된 성의 요소 도입. 전체 메이크업이 아닌 부분 메이크업. 여성의 내추럴 메이크업 혹은 남성의 메이크업. -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
차연	과거, 현재, 미래를 결합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함(시간과 공간의 개념 해체).	역사, 민족의 해체	일본 가부키 메이크업과 로코코 시대의 메이크업 변형. 실버 톤 혼합에 의한 분위기 표현. - 화이트 메이크업. 소수 민족의 문화 도입, 다양한 문화의 소재 혼합. - 레이스리스 메이크업.

체하며 동서양의 메이크업 문화의 경계를 허물고 소수민족의 전통적 메이크업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다.

또한 데리다의 이론에 따른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성 및 표현 방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1).

한편, 선행연구자 김현미(2000)와 김정화(2002)는 메이크업에 나타난 해체주의 특성을 데리다의 이론 Dis·De 탈현상과 레나토 포지울리의 이론인 퇴폐주의를 접목시켜 퇴폐성으로 분류하였고 데리다의 불확정성과 레나토 포지울리의 이론인 유희에 기인하여 유희성으로, 또한 데리다의 상호텍스트성과 레나토 포지울리의 모호성을 접목시켜 양성성으로 보았으며 데리다의 차연과 레나토 포지울리의 이론인 역사주의, 미래주의를 역사성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해체주의의 메이크업은 기존의 메이크업 개념의 틀을 벗어나 파괴성, 이질성, 부적합성, 탈중심성 등을 나타내고 얼굴이라는 조형요소를 해체하여 새롭게 재구성한 메이크업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데리다의 이론 Dis·De 탈 현상,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 차연을 토대로 해체주의 메이크업을 조형 양식의 해체, 성의 해체, 역사·민족의 해체로 분류하여 다루기로 한다.

I) 조형 양식의 해체

이는 기존 메이크업의 방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조형적 양식인 좌우대칭, 균형미, 통일감 등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색채의 사용도 무한한 영역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감각으로 연출하고 질감표현에 있어서도 피부표현을 극도로 과장하거나 전혀 동떨어진 소재를 사용함이다. 이 같은 특성을 언급하자면 ‘그로테스크’를 들 수 있겠다. 애매모호하며 기이하고 들어보지도 믿을 수도 없는 현상을 지칭할 때 ‘그로테스크(Grotesque)’라는 개념을 사용한다(김정화, 2002).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은 기존의 정형 스타일을 파괴하여 얼굴의 윤곽을 고려하지 않거나 강조되지 않은 부분을 강조하고 이목구비의 형태의 대칭구조를 파괴하는 등 탈형식적인 시도들이 나타난다. 또한 얼굴의 일부를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과도하게 많은 색상을 사용하고 혹은 극도로 색상을 제한하여 기발하고 새로운 시각효과를 보여준다.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은 그 특징에 따라 데카당스 메이크업, 데테스테 메이크업, 그래픽 메이크업, 콜라주 메이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데카당스 메이크업(Decadence Make up)

데카당스는 19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허무적이며 심미주의적 문예운동에서 비롯되었다. 패션에서는 악마스런 문양이나 과감한 색채사용, 그리고 성적인 부분이 과감하게 강조된 일종의 세기말적인 현상을

말한다(정삼호, 1996). 그러므로 데카당스 메이크업은 과감한 색채 사용이나 자극적인 장식 또는 성적 자극으로 인해 부자연스럽고 불건전한 양상을 보여 거부감과 혐오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메이크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림 6>은 한쪽 눈에만 초점 없는 흰색 컬러 렌즈를 끼고 이마에는 편을 꽂았다. 또한 그 사이 벌어진 피부 속에서 꽃이 피어남을 표현한 메이크업은 혐오스러운 기계 혹은 외계의 생물체를 대하는 듯한 공포와 거부감을 느끼게 한 작품이다.

(2) 데테스테 메이크업(Detester Make up)

데테스테(Detester)는 프랑스어로 혐악, 증오를 의미하는 단어로 ‘미와 추의 경계는 극히 모호하다’ 즉, 추악하고 저속한 것에도 의외의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발상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아르누보 시대의 모티브로 사용하던 곤충과 과충류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자연요소를 이용한 자유로운 발상에 의해 만들어졌다(정삼호, 1996). 데테스테 메이크업은 동물의 요소 일부를 메이크업 소재로 이용, 혐악하고 기이하며 데테스테한 이미지를 표현한 메이크업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지방시(Givenchy)의 97-98 A/W에서는 인체의 어깨에 새의 목덜미 부분을 형상화시키고 메이크업에서도 새의 깃털을 이용한 속눈썹과 붉은 컬러 렌즈를 이용함으로써 새의 날카로운 눈매를 표현하였다(그림 7).

곤충이나 동물의 요소를 메이크업에 차용하여 인간과 동물의 요소를 혼용하는 것은 인간과 다른 생물간의 상호텍스트성이고, 조형예술로서 메이크업이 동물,



<그림 6>



<그림 7>

곤충의 요소들로 인해 새롭게 재구성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님은 불확정성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3) 그래픽 메이크업(Graphic Make up)

그래픽(Graphic)의 어원은 그리스어인 그라피코스(Graph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쓰다’의 본 뜻이 있으며 ‘도식화한다’라는 의미 뿐만 아니라 ‘정형적인’, ‘비인간적인’의 의미도 갖고 있다(김영호, 1998).

인체를 하나의 캔버스로 생각하여 얼굴의 중심을 무시하고 새로운 공간개념을 창출하여 불확정성을 나타내며 중력의 작용 방향을 왜곡시킴으로써 본래의 의미로부터 이탈시켜 탈중심화된 새로움을 보여준다.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태, 색채배색과 모티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현기법으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그래픽 메이크업은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긴장감을 풀고 동심의 세계를 상상하게 한다.

2003 S/S 보우디카(Boudicca) 컬렉션에서는 화이트 컬러로 삼각형의 그래픽적인 모양을 얼굴 중심부에 그려 넣음으로 구조적 조형미를 느낄 수 있다(그림 8).

이러한 그래픽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에서 고려되는 얼굴의 구성요소를 해체한 탈구성적이고 탈중심적인 방법을 취하였다.

(4) 콜라주 메이크업(Collage Make up)

콜라주기법은 재료의 적절성에 대한 기준의 모든 관념을 깨고 재료가 갖는 한계성을 극복하여 재미를 유발시킨다. 메이크업에서도 이질적 소재의 결합을 통한 소재의 한계성을 탈피하려는 시도가 일어나 레이스, 종이, 모조품 등의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변화를 준다. 메이크업에서 이질적인 요소의 도입은 극적인 요



<그림 8>



<그림 9>

<그림 6> 데카당스 메이크업, Alexander McQueen, '97 S/S, Century of Fashion, p.351.

<그림 7> 데테스테 메이크업, Givenchy, '97-98 A/W, Modain, N.105, p.31.

<그림 8> 그래픽 메이크업, Boudicca, '03 S/S, Beauty Collection, Vol.1, p.80.

<그림 9> 콜라주 메이크업, John Galliano, '00-01 A/W, Collection II, p.489.

소에 의해 기이하고 부조화된 느낌 또는 재치와 유머를 전달하며 다양하고 풍부한 창조를 가능하게 한다.

<그림 9>는 주근깨의 발그레한 불과 색종이를 오려 눈에 붙이고 색 테이프로 머리를 장식하여 기존의 메이크업을 왜곡시켰다. 이는 ‘유아적 미학’이 하이 패션에 도입되어 표현됨으로서 연령의 경계를 허물었으며 이러한 시도는 패션에서의 탈중심화 현상인 동시에 T.P.O가 혼돈된 상호텍스트성을 보여준다.

콜라주 메이크업은 재료의 한계를 탈피하여 다양한 변화를 시도함으로 이는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해체주의의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과 탈구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성(性)의 해체

최근 세계 패션계는 현상에 관한 다양한 개념이 하나로 통합되는 경향으로 경계가 있는 모든 텍스트에 대해 조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인간적 파괴 본능이 복잡하고 대중화·익명화 되어 가는 상황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는 사회, 문화, 예술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다(김경아, 1999).

성의 해체는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닌 서로의 텍스트를 인정하고 수용하여 상호관계에서 존재함을 말한다. 즉 남성의 여성화, 여성의 남성화로 인해 두 가지의 성을 모두 지닌 형태로 제3의 성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는 데리다의 상호텍스트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현대에 와서 이러한 양성적 특성은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 같은 성의 해체는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Androgynous Make up)으로 설명하였다. 앤드로지너

스(Androgynous)란 남성과 여성이 가지는 고유한 성을 이성과 조화롭게 지니는 것으로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융합시킨 것이다.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없는 메이크업으로, 여성이 눈썹을 남성처럼 굽고 짙게 그리거나 눈 주위를 어두운 컬러로 칠하며 남성의 수염을 차용하고 머리를 짧게 자르기도 한다. 또한 여성이 본래의 얼굴에 가깝도록 자연스럽게 메이크업 한 것을 말한다. 남성은 메이크업을 하거나 머리를 길게 기르고 밝은 컬러로 염색을 함으로 여성적 이미지를 연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미를 확대시켜 성에 대한 경계를 허물어 성 구분이 모호하도록 서로의 성이 동시에 표현된 메이크업, 남성 또는 여성과는 차별된 성 이미지를 지닌 메이크업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10>은 색감의 절제가 돋보이는 여성적인 내츄럴 메이크업과 꽃 장식한 헤어스타일에 남성의 상징인 콧수염을 그려 성의 요소를 혼용함으로써 비정형적이며 성의 상호텍스트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은 두 가지 성(性)을 공유하는 것으로 전통적 성 역할에서 벗어나 각자 인간으로서의 개성추구를 원하는 현대인들에 의해 많은 시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3) 역사·민족의 해체

역사·민족의 해체는 패션의 과거와 미래가 연관되어 존재한다는 점이 해체주의 이론의 차연으로 설명된다. 과거와 연관되어 혼존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형태로 결합되는 것이며 텍스트가 시간·공간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그림 10>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 John Galliano, '00-01 A/W, Collection II, p.243.

<그림 11> 화이트 메이크업, John Galliano, '03-04 A/W, Beauty Collection Vol. 2, p.243.

<그림 12> 레이스리스 메이크업, John Galliano, '97-98 A/W, Modain, N.105, P.193.

적으로 분리 혹은 합성된다. 따라서 차연은 메이크업에서 모든 불변의 의미를 제거하고 메이크업의 본래 의미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해체주의의 메이크업에서 역사·민족의 해체는 과거의 형식을 차용하되 과거의 의미와 상징성을 탈피하여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것으로 독특한 형태와 색상을 혼성모방, 변형, 삭제의 기법으로 표현하며(김현미, 2001) 이는 고대부터 사용되었고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화이트 메이크업(White Make up)과 다민족적 특성이 공존하는 레이스리스 메이크업(Raceless Make up)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화이트 메이크업(White Make up)

서구사회에서 화이트컬러는 역사적으로 깨끗함, 순수함, 우월성의 의미를 지니며 상위계층을 상징해왔다. 한편 화이트는 애도, 패자의 의미이기도 하고 과거의 컬러이면서 미래의 컬러이며 시작과 완성의 극단적 특성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컬러이다. 이와 같이 개방성을 지니고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화이트 컬러를 이용한 메이크업을 화이트 메이크업이라 한다. 1990년대 이후 캣워크에서 화이트 컬러는 헛 아이템으로 등장했으며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요소가 강한 컬렉션에서는 다양한 아이템에 화이트 컬러를 도입하여 그에 대한 고정관념을 봉괴하였다(김현미, 2001).

하얀 마스크를 쓴 듯한 <그림 11>은 굳이 블랙라인을 사용하지 않고도 아이라인과 아이브로우 라인을 부드럽게 상승시켜 동양 여성의 눈을 표현하였으며 이는 중국 경극 메이크업을 패러디한 것으로 해학적 이미지를 전달한다.

이와 같이 화이트 메이크업은 역사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에 이문화적인 요소를 병치시켜 시간·공간의 해체와 절충을 동시에 보여준다.

(2) 레이스리스 메이크업(Raceless Make up)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문화적 경계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시대·문화의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고 종합하려는 양식이 대두되었다. 이에 역사적으로 성립되어온 민족성을 해체하여 다국적으로 나타난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 레이스리스(Raceless)이다(Vogue Korea, 1998). 레이스리스는 다양한 문화를 공존시킴으로써 지배적 가치가 붕괴된 혼돈의 세기 말을 극복하고 인간 본성을 되찾고자 하는 것으로 메이크업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동

양과 서양 또는 소수민족 문화, 혼인 문화의 전통적인 특성이 반영된 메이크업을 레이스리스 메이크업이라 하였다.

<그림 12>는 고대 이집트 룩을 재현한 것으로 강렬하고도 화려한 눈화장이 돋보이는 메이크업이다. 녹색 기운이 짙은 강한 색감과 골드빛을 눈화장에 더하여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메이크업으로 볼 수 있다.

레이스리스 메이크업은 차연의 의미로 다양한 문화가 자신의 공간을 이탈하여 한 공간에서 혼합되어 표현되었다.

III. 작품 제작

1. 작품제작 의도 및 방법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은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다양화로 메이크업 디자인의 보조 수단으로서 탈피하여 자체로서의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에 있어서도 다양한 재료와 표현 기법에 따른 것 뿐만 아니라 메이크업의 테마에 따른 일러스트레이션의 시도가 디자인 발상의 측면에서 또 다른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주제를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에 적용시킴으로 표현 영역의 확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작품은 해체주의 메이크업 특성과 이미지에 맞는 소재를 모티브로 삼아 제작하였다. 또한 작품의 표현 방식으로는 다양한 느낌과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기본적 드로잉 칼라인 수채화 물감, 포스터 칼라, 아크릴 물감, 색연필, 파스텔 등에서부터 잡지, 신문, 한지, 부직포, 스크린톤, 구슬, 비즈, 깃털 등 여러 가지 오브제의 활용으로 재료의 제약 없이 자유로운 화면 구성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2. 작품 및 해설

[작품 1]

분류 : 조형 양식의 해체 - 데카당스 메이크업

재료 : 스크린톤, 부직포, 비즈, 금가루, 포스터칼라, 색연필

작품 해설 : 창백하리 만큼 밝은 피부색. 이와 대조를 이루는 검은 색 아이 샤도우와 아이라인은 눈물을 흘려 검은 물이 흘러내린 듯하게 불규칙한 선 처리로



<그림 13> 작품 1



<그림 14> 작품 2

표현하였다. 이는 메이크업 기법을 왜곡시킴과 동시에 암울한 분위기도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눈두덩을 중심으로 불규칙하게 비즈를 붙임으로서 다소 정돈되지 않은 느낌의 아이메이크업을 표현하려 하였다. 또한 빨간 입술에 중심부위는 검정으로 포인트를 준 것과 팔뚝부위의 타투(Tattoo), 빨간 컬러의 헤어연출을 통해 퇴폐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작품 2]

분류 : 조형 양식의 해체 - 데카당스 메이크업
재료 : 스크린톤, 부직포, 비즈, 색종이, 칼라 펜,
포스터칼라, 색연필

작품 해설 : 모자·헤어·의상의 블랙과 피부의 화이트, 부분 마스크의 레드와 아래 눈썹의 그린으로 색상 대비를 이루어 시각적 자극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메이크업 기준 방식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그런계열의 이색적 립 컬러로 인한 생소함, 무표정한 얼굴에 표현한 초록빛 눈썹의 억지스러움과 과장됨을 통해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입체감을 주기 위해 눈썹, 눈동자는 오브제를 이용하였다.

[작품 3]

분류 : 조형 양식의 해체 - 데테스테 메이크업



<그림 15> 작품 3



<그림 16> 작품 4

재료 : 깃털, 금가루, 색 모래, 포스터칼라, 수채화 물감

작품 해설 :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고자하는 욕구를 표현하기 위해 머리는 새의 깃털을 이용하여 장식하였고 아이라인은 새의 날카로운 눈매와 털의 화려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금색으로 터치하였다. 위와 같은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고자 미간에 청록빛의 깃털을 이용하였으며 입술도 새의 작은 부리를 연상시키기 위해 과도하게 축소시킨 립 메이크업으로 연출하였다. 본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서 인간과 동물의 요소를 혼용하는 타 생물간의 상호텍스트성과 이로 인해 메이크업이 새롭게 재구성될 수 있는 불확정성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작품 4]

분류 : 조형 양식의 해체 - 그래픽 메이크업
재료 : 색종이, 잡지, 화장품(트윈케이크, 아이샤도우 컬러), 포스터칼라, 수채화 물감, 색연필

작품 해설 : 한쪽 눈 메이크업으로 포인트의 폭을 좁혀 메이크업의 정형적 표현 기법을 무시하였다. 형광 컬러의 다양한 색종이로 불규칙적인 면 분할을 주고 분할시키는 라인은 상반되는 저명도 색의 검정을 이용하여 각자의 컬러를 더욱 강조되어 보이도록 처리함으로써 그래픽적인 느낌을 살리고자 하였다.

[작품 5]

분류 : 조형 양식의 해체 - 콜라주 메이크업
재료 : 잡지, 비즈, 반짝이 풀, 칼라 펜, 포스터칼라
작품 해설 : 사진의 형태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전환시킨 콜라주 기법의 헤어스타일과 얼굴을 통해 기발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눈을 중심으로 다양한 컬러의 비즈를 붙임으로 한변 쯤은 화려함과 사치를 동경하는 여자의 심리를 묘사해 보았고 이마 중앙에 꽃모양의 콜라주 연출은 유아



<그림 17> 작품 5



<그림 18> 작품 6

적이면서도 여성스러움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 6]

분류 : 성의 해체 -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
재료 : 부직포, 잡지, 색종이, 화장품(트윈케이크,
아이섀도우 컬러), 수채화 물감, 포스터칼라,
아크릴 물감, 색연필

작품 해설 : 건조한 도시와 그 속에서 메마른 정서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단순하게 표현해 보았다. 또한 이 사회는 남녀가 평화롭고 평등하게 공존해 가야 함을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였다. 베이스컬러는 중간 톤으로 처리하였고 남성적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검고 굵으며 거친 눈썹 표현과 광대뼈 골격을 강조 즉 광대뼈 밑을 섀도우로 처리하여 강조하였다. 이와 반대로 여성적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밝은 오렌지 컬러의 아이메이크업으로 표현해주었고 입술도 작고 붉은 컬러로 연출하였다.

[작품 7]

분류 : 역사 · 민족의 해체 - 화이트 메이크업
재료 : 잡지, 비즈, 스펜지 볼, 아이섀도우 컬러,
금가루, 포스터칼라, 색연필

작품 해설 : 1970년대 유행하던 복고풍 헤어스타일로 모근으로부터의 반은 스트레이트 모발 끝 부분은 웨이브 디자인을 연출하였으며 웨이브의 표현은 단순하면서도 추상적 이미지로서 다양한 크기의 원형으로 대신 하였다. 좀 더 입체감을 주기 위해 스펜지 볼을 군데군데 붙여 주었다. 가부끼 메이크업을 연상시키는 하얀 피부 표현과 동양적 눈매에 화려함을 더해주기 위해 아이섀도우 컬러는 금빛으로 연출하였으며 연지 · 코지 그리고 인도 여인들이 눈썹 사이에 찍는 상징적인 화장을 응용하여 볼과 이마를 장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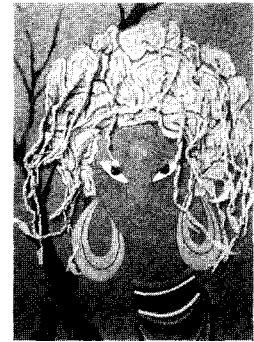
[작품 8]

분류 : 역사 · 민족의 해체 - 레이스리스 메이크업
재료 : 한지, 스웨이드, 금가루, 아이섀도우 컬러,
아크릴 물감, 포스터칼라, 수채화 물감

작품 해설 : 아프리카 원주민의 끈 머리 스타일의 이미지를 살리고자 한지를 말아 표현하였다. 힌두교도들의 상징으로 이마 중앙에 색료를 바르는 문화에서 모티브를 얻어 불교의 상징 칼라인 오렌지색으로 이마에 원형 모양의 페인팅을 해주었고 붉은 컬라의 눈 주위 메이크업은 중국의 경극에서 행하는 분장 표현기법으로 연출하였다. 액세서리를 즐겨하는 아프



<그림 19> 작품 7



<그림 20> 작품 8

리카 부족들의 느낌을 주기 위해 귀걸이 · 목걸이를 과장시켜 그렸다.

IV. 결 론

1990년대 말 이후 캐워크를 중심으로 한 토텔패션에서는 형태 파괴, 불완전성, 왜곡, 기형 등 실험적이고 충격적인 '추'의 미가 본격적으로 표현되었고 메이크업의 기능과 표현 방법의 비 관련성으로 각 요소간 극도의 모순적 경향을 보임으로 모든 것을 초월한 자유로움을 나타내는 해체주의 현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 패션의 흐름에 있어 주목받고 있는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제작에 있어서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징들을 테마로 삼아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영역의 확대와 표현 방법의 다양함을 추구하였다.

해체주의 메이크업은 그 특성을 조형 양식의 해체, 성의 해체, 역사 · 민족의 해체로 구분 지어 설명하였다. 조형 양식의 해체에는 데카당스 메이크업, 데테스테 메이크업, 그래픽 메이크업과 클라주 메이크업이 있다. 성의 해체에는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이 있으며 역사 · 민족의 해체는 화이트 메이크업과 레이스리스 메이크업으로 분류하였다.

해체주의를 응용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제작에서는 수채화물감, 포스터칼라, 색연필 등의 기본적인 드로잉 재료뿐만 아니라 잡지, 부직포, 스크린톤, 비즈, 구슬, 스웨이드, 모래 등의 오브제를 활용하여 입체적 표현과 매체의 혼합 등을 보여줌으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양식에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능성을 제시하였다.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성을 모티브로 삼은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은 묘사 위주의 표현에 치중되는 것에 얹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의 영감과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작품 제작 표현기법에서 충분히 해체주의를 활용하지 못한 것에 그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험적인 새로운 소재·주제 개발과 표현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훈련이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이 외적 표현의 부수적인 수단으로서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서 정착 발전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형식이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개방적, 창조적인 사고를 지향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실험성이 강한 다양한 예술 사조나 패션양식을 모티브로 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의 후속 연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김경아. (1999). 1990년대에 나타난 Less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영호. (1998). 시각디자인의 구성 원리. 서울: 태학사.
- 김정화. (2002). 현대 해체주의 메이크업 표현에 관한 연구: 1990년대 후반 패션쇼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주현. (1999). 현대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연. (1997).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 연구: 건축과 복식의 비교.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현미. (2000).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 특성: 1990년대 후반 캐워크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형호. (1993). 테리다의 해체철학. 서울: 민음사.
- 김혜정. (1998). 현대 건축형태 구성과 해체주의의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엘지 한방화장품 광고. (2003, 9. 15). 주간신문 코스메틱, p. 8.
- 윤소정. (1996). 해체주의적 복식디자인에 관한 연구: 탈 형식의 코디네이션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광래. (1989).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교보문고.
- 이상봉. (2003).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의 활용과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예술 학회지*, 4(1), 11-13.
- 이연희, 이화진. (2003). *Make-up Design*. 서울: 청구문화사.
- 이영애, 김영규, 노선옥, 이귀영, 김선영. (2002). *Beauty Illustration*. 서울: 청구문화사.
- 임광숙. (1998). 해체디자인의 문화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삼호. (1996). 현대 패션 모드. 서울: 교문사.
- 조말희. (1997). 현대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미영. (1999).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해체현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크리스토퍼 노리스, 앤드류 벤자민. (1996). 청립 번역팀 옮김.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청림.
- Beauty Collection*. Vol.1. (2003). 한국.
- Beauty Collection*. Vol.2. (2003). 한국.
- Collections II*. (2000). Japan.
- Francois, B. (1999). *Century of Fashion*. London: Thames & Hudson.
- Make-up Art*. (2003, 7). *한국분장예술인협회*.
- Modain*. No.105. (1997). Italy.
- Vogue Korea*. (1998, 12). 한국.
- Vogue Korea*. (2001, 4). 한국.